

“주력산업 피해 완화…쌀·소고기 막아 농민들 위안”

시·도지사 “불확실성 해소 환영”

강기정 시장 “지속가능 수출 기반 노력”

김영록 지사 “전남 조선업 새로운 기회”

“관세 충격 극복 피해 최소화” 한목소리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극적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환영하며 자국 중심 외교정책

을 고수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낸 정부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당초 예고된 25%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세가 타결된 것은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 수출산업의 피해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동차의 경우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돼 광주 완성차 공장의 차량 생산

및 수출 정상화, 협력 부품업체의 경쟁력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강 시장은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물량 감소와 고용 위축 등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내수 진작과 AI 프리미엄 가전 개발, 수출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코로나, 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동남아 및 유럽 등 미국 외 지역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 관세 충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수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타결을 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 온 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켜왔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며 “전남은 특히 쌀과 소고기를 추가 양보없이 지키게 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춰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드디어 해소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 지사는 “국민적 우려가 매우 컸던 쌀 추가 개방과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 농

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내 이웃나라보다 협상을 매우 잘한 성과”라며 “가뜩이나 폭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국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단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1천500억달러 조선협력 전용 펀드는 전남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도는 협상 내용과 추후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철강 등 지역 산업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기수희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약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협상단 “관세·비관세 美 압박 계속될 것”

“조선협력 프로젝트, 타결 가장 큰 기여”

“끈질긴 설명 농축산물 추가개방 없기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 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무역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무역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천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조선업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협상단의 일원인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조선, 선박 수요를 우리 기업이 앞으로 미국과 함께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농축산물에 대한 미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이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여러 가지 관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무역상대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폐) 압박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성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는데, 안심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시장 다변화 등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농산물 검역절차 개선

농업계 “정부 시장 사수 의지 환영”

사과 등 농산물 후속 협상엔 ‘축각’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기로 하면서 농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통상 당국은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인 다음 달 1일을 하루 앞두고 압박이 심한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애초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 라인’으로 설정한 쌀·소고기 시장 개방까지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시장을 추가로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미 양국이 앞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히는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농업계는 후속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줄곧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시장 개방 등을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다른 국가와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을 주요 카드로 써 왔던 것과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일단 이번 협상에서 이 시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입국이고,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약 80억달러(약 11조원)에 달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쌀과 소고기를 ‘레드 라인’으로 두고 협상에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신 만약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고려했다.

정부가 추가 개방 차단에 주안점을 두고 협상을 타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우리 측에선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실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카드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도 엮인 문제여서 우리 측에서 추가 시장 개방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본의 경우 각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할당하지 않아, 다른 국가의 동의 없이도 미국의 쌀 비중을 확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 5개국에 TRQ를 각각 적용하고 있어 세계 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고기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검역 규제를 해제할 경우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통상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한미 양국은 앞으로 농산물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우리 정부 협상단에 과채류 검역 절차를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품목별 논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와 농업인단체 모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국 대미국 무역 합의 비교					
	영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합의 날짜 (미 현지 시간)	5월 8일	1차: 5월 12일 2차: 6월 10일 3차: 7월 29일*	7월 22일	7월 27일	7월 30일
상호관세 (8월 1일 시행)	10%(4월 발표) 유지	125%(4월 시행) →10%(5월 시행)	25%(7월 서한) →15%	30%(7월 서한) →15%	25%(7월 서한) →15%
주요 품목 관세	자동차 25%(최혜국 관세 포함 시 27.5%) →10%	모든 중국산 품목 145%(2월 시행) →30%(5월 시행) (상호관세와 편타널 관련 관세 20% 포함)	자동차 25% →12.5%(기존 관세 포함 시 15%)	자동차 25%(최혜국 관세 포함 시 27.5%) →15%	자동차 25% →15%
철강·알루미늄	25% →0%	소액 소포 120% →54% (5월 시행)	철강·알루미늄 50% 유지	철강·알루미늄 50% 유지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 상호 무관세
구매	100억달러 규모 미국 보잉사 항공기 구매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 (약 1,038조 원) 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 규모 구매
투자			미국에 5,500억 달러 (약 759조 원) 투자	미국에 6,000억 달러 (약 830조 원) 투자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약 487조 원) 투자
자국 시장 개방	에탄올·소고기· 농산물·기계류 등 시장 개방		자동차·트럭· 일부 농산물 등 시장 개방		자동차·트럭· 농산물 등 완전 개방 (쌀·소고기 제외)
기타	미국 수출품 관세 절차 간소화	미국산 수입품 보복 관세 125%(4월 시행) → 10%(5월 시행) 대미 핵심광물·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사업에 미일 조인트 벤처 설립		미국산 제품 무관세 수입

연합뉴스

*8월 11일 만료되는 1·2차 합의 내용 90일 연장 잠정 합의

광주·전남 주력산업 車 ‘선방’·농산물 ‘안도’

한미 FTA ‘무관세 프리미엄’은 사라져

“농업 보호산업 명확히 규정해야” 촉구

한미 양국이 31일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합의함에 따라 광주·전남 주력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과 관세율이 똑같아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전남의 경우 쌀과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이번 양국의 관세 협상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관세 인하 여부는 최대 관심사였다.

지난 4월부터 품목 관세 25%를 부과받아 국내 자동차 업계가 영업이익의 현저한 감소 등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영업이익은 미국 고율 관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천 282억원(15.8% ↓), 7천 880억원(24.1% ↓) 등 총 1조 6천 142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스포티지 등 미국 주력 판매 차종을 생산하는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난해 수출 물량(33만 2천 117대) 중 약 50% 이상인 18만여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 비중도 60%(전 세계 수출 18만 1천 323대 중 11만여대) 이상을 차지하며 대미 수출 의존도가 갈수록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25%의 관세를 15%까지 낮춰 최악의 결과는 피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동차 품목 관세를 일본·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긴 했지만 한미 FTA ‘무관세 프리미엄’이 사라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한미 FTA로 미국에 수출할 때 무관세를 적용받고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은 25%의 관세를 부과받아왔다. 관세 협상 결과, 모두 15%로 같아지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25% 효과’가 없어진 셈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준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또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기아는 “15%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현대차·기아는 다각적 방안을 추진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쌀·소고기를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 농업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을 보호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통상정책에서 농업을 협상 테이블 바깥에 두는 원칙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청 앞에서 쌀·소고기 추가 개방 반대 천막농성을 벌여온 진보당 박형대·오미화 전남도 의원은 “쌀, 소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미국의 부당한 통상 협박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정·임재만 기자